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는 결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물질적부, 지적학적위위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잃게 되고 가난과 락후, 예속과 굴종을 면할수 없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철통이다.

오늘 공화국이 지향하는 자립적이며 강력한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고 실현되어가고있다.

얼마전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리비료공장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자체의 원료와 자원, 기술에 의거하여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이 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고 에네르지절약형, 로력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업부분의 본보기, 표준공장이자이다.

순천리비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알곡생산은 훨씬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과 악성비루스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속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공업분야를 창설하는것과 맞먹는 현대적인 린비료생산기지를 일떠세운것은 과학기술의 튼튼한 안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과학기술은 최대로 중시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정책적문제들이 토의되는 회의들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의 전모와 그 건설의 목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재인명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힌 력사적인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고 과학기술발전과 교육사업에 전국각적인 힘이 집중되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로 교체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또한

국가인재정책에 의해 교육부문에서도 전반적12년제교육목적이 새로 확립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계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과학기술보급기점들을 돌아보시며 근로자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지난해 10월 어느 한 시험농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어느 단위, 어느 부문을 가거나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과학기술중시관점과 일본새를 국풍으로 펼쳐히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군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 믿어주시었다.

몇해전 6월 어느 한 연구기관을 찾으면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있는 이런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면 자신께서 정말 행운을 타고났것 같다고 하시였고 또 언젠가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석에 앉혀준다 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낱한시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이 떨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앞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별의 화폭을 남기시였으며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뿐이 아니다.

명당자리에 훌륭하게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부와 은하과학자거리, 연평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위성과과학자주력지부와 은하과학자거리, 연평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은 공화국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뚜렷이 중시해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과학으로 비약하며 흥하는 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최근년간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는 더욱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해마다 우후죽순처럼 솟구쳐 온 대기념비적창조물들, 방방곡곡에 늘어나는 현대적인 본보기, 표준공장들과 사회주의바다항구를 불러온 황금해의 새 력사...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중평년내은실농장과 양묘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설수 있었던것도 공화국의 튼튼한 과학기술력량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도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강한 전략사상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현실은 자력강성의 위대한 정진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될 때 뚝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릴수 있음을 웅변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폭으로 틀어쥐고 국가의 강성한 위상을 더 높이 떨쳐갈 것이다.

오늘도 세계무대에서는 자주와 정의의 유린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치지 않고있다.

외세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위를 지키자면 군력이 강해야 한다. 이것은 어제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군력이자 국력이자이다.

돌아켜보면 19세기말-20세기초 이 땅은 령강들의 각축전장이 되고 전성령으로 화해되였다. 나라가 힘이 약한 결과 초래된 비극적현실이였다.

나중에는 신식무장을 갖춘 섬나라의 오랑캐들이 달려들어 나라를 내놓으라고 강박해도 변변히 맞서싸우지도 못하고 국가주권과 령토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힘없는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20세기말-21세기초에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빚어진 류혈참극들도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강력한 자위적힘이 없이는 자기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지역의 평화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 지방의 압력과 회유에 걸리는 자급내적국력만으로는 오래 버틸수 없다는것이 이젠 전 세계의 공통된 교훈이 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도처에서는 군력이 약한탓에 령토가 외국군대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전쟁과 내전의 화염이 치우아오르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천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타향으로, 낯설은 이국으로 떠나가는 구슬픈 행렬이 그칠새없이 이어지고있다.

말로는 지킬수 없고 구걸로도 이룩할수 없는것이 나라의 존엄이고 인민의 안녕과 평화인 것이다.

오늘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잔인무도한 제재와 위협, 압살

책동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자기 인민이 선택한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군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데 있다. 어떤 령도자를 모시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면 약했던 나라와 민족도 강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제날에 지녔던 높은 존엄과 위상이 지워져 마려이라는것을 지나온 인류사는 가르쳐주고있다.

존엄은 자주의 나라, 불패의 군사강국.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조선의 이 지위와 위력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시며 공화국이 누리는 특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욱 굳건한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버리시며 남들이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하는 국가적대업들을 짧은 몇년여간에 다계단으로 이루어내시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군력강화를 위한 중대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위협천만한 화살을 결으신 불면불욕의 헌신속에 오늘 공화국의 군사력이 백방으로 다져진것이다.

지난해에도 삼지연시와 양덕, 중평땅에 인민을 위한 재부들이 일떠서고 얼마전에는 순천리비료공장건설이 완공되는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특이적인 성과들이 련속 이룩되고 있는것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주는 강위력한 군력이 안받침되어있기때문이다.

나라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남들은 세세년년 평화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있게 될것이다.

변함없는 진리

림명호



순천리비료공장

매혹과 흠모

한없이 세심하신분

경애하는 원수님은 창조의 거장이다. 그이께서 펼치는 일은 모든것이 거창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처럼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듯 거창하게 작전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내미시면서도 작은 세부도 놓치지 않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얼마나 세심하신분이신가 하는것은 인민을 위해 현대문명이 응축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꾸려주도록 하시면서도 뜨끈한 온천물로 닭알을 삶아먹는 장소까지 마련해주신 다심한 은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인민들의 문화휴양지로 천지개벽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본 해외동포 녀성은 글에서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었다.

《...살림집에는 고운 도배종이를 바른 살림방들과 깨끗한 세면장은 물론 쓰기 편리하게 지은 창고와 집집승우리도 있었다. 방에는 이불장, 옷장을 비롯하여 생활에 당장 필요한 가구들이 준비되어있었고 부엌세간들도 마련되어있었다. 부엌이 궁이앞에는 새 주인이 쓸 썰나무를 준비해두었고 부엌창고에는 울겨울을 날수 있는 충분한 량의 석탄도 쌓아두었다.

당시 주민들을 위하여 집만 지어놓은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해줄가를 고심하며 섬세하게 준비한것들이다. 당일군들의 마음이 꼭 자녀에게 첫 살림을 퍼주는 어머니의 마음같다.

북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최고지도자가 있고 인민의 생활을 어머니처럼 섬세하게 보살피는 당이 있으며 이런 최고지도자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들이 있다.》

흠은 말한다. 공화국에서 사는 남로서고 그 누구에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가닿고있고 이 땅에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마다에 그이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건거리에 일떠선 초고층아파트의 맨 윗층인 45층에 오르셨을 때였다.

몸소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방과로 부엌 등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배란다에 나서시였다.

대동강을 따라 한쪽의 그림자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야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문득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고 들어보니 창문가에서 들릴까말까한 바람소리도 울려나오고있었다.

초고층이어서 바람이 센것은 응당할것이라고 여기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람이 불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때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도 언젠가 건설중에 있는 문수물놀이장을 찾으면서는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을 때에는 실내물놀이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다가 채광이 잘되어 여름에는 몹시 더울수 있다고 하시며 햇빛

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 그늘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의빙상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일깨워주시였으며 룡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시어는 물놀이장에 응급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실과 감시대도 꾸려주어 사고가 나면 구조를 할수 있는 대책도 세워줄때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또 어느 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는 위생실바다에 물을 부어보도록 하시어 바닥의 물때도 가해보시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어느 한 교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책상우편의 흠을 파우어 책상우편인 연필이나 원주필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금 수도의 중심부에 건설되고있는 평양종합병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게 세심하고 따사로운 령도의 손길아래 날이 갈수록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그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그이의 섬세함도 그 기초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놓여있다. 인민을 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창조물들과 세부들에는 자그마한 티도 없어야 한다고 여기시며 그렇게 세심히 관심하시고 일깨워주고 계시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보진군(당시)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어 재정국(당시)에 제기한 방역자금문제가 해결되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며칠전에 보진군에서는 당면한 방역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국에 청구한바 있었는데 그이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것이였다.

제기한 자금문제가 그날까지도 풀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으신 이 책임일군께서는 자금의 수모를 알아보시고 곧 재정국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잠시후 재정국의 일군이 방에 들어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게 보진군이 제기한 자금을 대줄수 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재정국의 일군은 인민들의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의 높은 뜻을 모르느바 아니였으나 나라의 재정사정이 너무도 긴장하여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재정행편을 모르고 물으시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을 그 일군은 잘 알고있었다.

근 반세기동안 조선의 경제행편을 돌리려고 수많은 재물을 강탈해간 일제가 폐망하면서 남긴것이란 우리 인민의 고혈로 얼룩진 장부책과

링 빈 금고뿐이었다. 말그대로 빈터에서 경제를 복구하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던 그때 어디에서나 요구되는것이 자금이었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역시설을 갖추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을 갖 맞은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은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올 위험성이 매우 많다, 만일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와 퍼진다면 우리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곤난이 있더라도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계획된 대상에 대한 투자예산을 일부 메서라도 방역자금을 꼭 보장해주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거액의 방역자금!

여기에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역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온 인민들을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새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아버지의 한없이 뜨거운 인민사랑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이것은 세계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에서만 불리우고있는 시대어이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이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므로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신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태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그이의 인생관이고 인민들이 쓰고갈 모든것이 어는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고 최상의것이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높은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을 위하여 사시는분,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명으로 지니신 령도자이시다.

예로부터 위인에 대해서는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령도력, 천리혜안의 예지, 령장으로서의 지략과 담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존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어떤분이신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산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금의 맛도 친히 가해해보시고 소금더미를 백금산에 비겨 말씀하시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에게 가닿게 될 행동저장고의 물고기블록도 금피처럼

손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호맛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 하시였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산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금의 맛도 친히 가해해보시고 소금더미를 백금산에 비겨 말씀하시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에게 가닿게 될 행동저장고의 물고기블록도 금피처럼

친과 스키, 승마를 즐기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 그 길은 명절날과 휴식날, 깊은 밤, 이른새벽도 가릴없이 걸으시는 길, 내리는 찬눈비 다 맞으면서 천만고생을 겪어야 하는 길,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걸으시는 길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모든것을 락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커가는 행복에서 더없는 보람을 찾으시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

